

# 『濟州啓錄』에 기록된 19세기 제주도민의 해난사고와 중국표류\*

원 종 민

(사이버한국의국어대학교 중국어학부 교수)

## 目次

- I. 서론
- II. 『濟州啓錄』 중의 海難事故 기록
- III. 제주도민의 출신지 위장
- IV. 제주도민의 중국표류와 귀환
- V. 결론

## I. 서론

『濟州啓錄』은 조선 憲宗12년(1846)2월26일부터 高宗21년(1884) 11월 6일까지 濟州牧에서 조정으로 보고했던 啓文이다. 이 책은 1995년 제주도 서귀포시 고서총람 번역1권으로 출간되었으며, 2012년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다시 내용상의 오류를 수정하고 현대어의 감각을 살려 제주학 총서 제4권으로 재출간하였다.<sup>1)</sup> 『제주계록』에는 제주 지역의 농사 현황, 進上物, 제주도민의 각종 海難事故와 외국 선박의

\* 이 연구는 2013년도 사이버한국의국어대학교 교내연구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연구는 2013년 11월 2일 제주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제96차 중국학연구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토론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부산외국어대학교 정윤철 교수, 사단법인 제주포럼의 문대탄 이사장께 감사드린다.

1) 초판본과 재판본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원문의 오류, 인명 표기의 오류 등이 아직도 많이 보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漂到와 來泊, 제주지역의 과거시행 내용, 관아 건물 및 城堞, 무기정비에 관한 내용 등 제주 지역의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관한 보고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19세기 제주 지역의 사회, 역사, 생활사 등을 연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사자료이다.<sup>2)</sup> 본 논문에서는 『제주계록』에 기록된 19세기 제주도민의 해난사고 기록을 살펴보고, 제주출신 표류민의 출신지 위장과 그 원인, 그리고 중국으로의 표류와 귀환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II. 『濟州啓錄』 중의 海難事故 기록

규장각 도서 분류 목록에 『제주계록』은 5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책의 수록 연도와 기록이 누락된 연도는 다음과 같다.<sup>3)</sup>

- 제1책: 현종12년(1846) 2월4일 ~ 철종9년(1858) 10월2일  
(철종10년(1859) ~ 고종2년(1865) 까지 7년간 기록 누락)
- 제2책: 고종3년(1866) 8월14일 ~ 고종9년(1872) 5월 26일  
(고종10년(1873) ~ 고종17년(1880)까지 8년간 기록 누락)
- 제3책: 고종18년(1881) 8월14일 ~ 고종20년(1883) 5월 29일
- 제4책: 고종20년(1883) 7월22일 ~ 고종21년(1884) 1월
- 제5책: 고종21년(1884) 5월 ~ 고종22년(1885) 10월

현종12년(1846)부터 고종22년(1885)까지는 39년이지만, 누락된 15년간의 기록을 제외하면 실제로 24년간의 기록이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제주계록』에 기록되어 있는 제주도민의 海難事故 건수<sup>4)</sup>는 모두 108건이며, 해난사고를 당한 사람은 1,220명이다. 이를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약 4.4회의 해난사고가 발생했으며, 매 번

2)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4, 『제주계록』, 경신인쇄사, 2012, 5-7쪽 해제 부분참고

3) 상동

4)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海難事故의 주체는 제주도민에 한하며, 외국선박이 제주도에 표착한 14건의 수는 포함시키지 않음

해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약 11명이상이 국내외로 표류를 하거나 익사, 실종, 행방 불명 등의 해난사고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기록의 내용을 보면 조난자의 대부분은 남자들이지만 해산물을 채취하던 潛女들의 사고 역시 적지 않으며, 나이 어린 아동과 걸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기록이 누락된 15년 동안에도 수많은 해난사고가 발생했었다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실제 19세기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해난사고는 『제주계록』에 기록된 내용보다 훨씬 많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 2.1 海難事故의 원인과 유형

제주도는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아주 오랜 옛날부터 수많은 해난사고가 발생했었다. 崔溥(1454~1504)는 이미 그의 『漂海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sup>5)</sup>

우리나라 사람이 공사간의 일로 제주를 왕래하다가 갑자기 풍파를 만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끝까지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은 백 명 중에 겨우 한 두 명뿐이다. 어찌 이들이 모두 바다의 풍파에 가라앉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暹羅<sup>6)</sup>나 占城國<sup>7)</sup> 같은 섬 오랑캐의 나라로 표류해간 자는 다시 돌아올 희망이 없고, 간혹 중국 땅에 표류했다 하더라도 또한 그 곳 변방사람들이 무고하게 왜적으로 오인하여 목을 베어 상을 받은들 누가 그 사정을 알 수 있겠는가?

그의 말에 따르면, 이미 제주도에는 오래전부터 수많은 해난사고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그 생존귀환 가능성 역시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동남아 국가로 표류해 갈 경우 귀환 가능성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표류해 간다 해도 중국인이 공을 이루려 무고한 표류민을 왜적으로 몰아 목을 벨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崔溥 『漂海錄』卷之一, 潤正月十九日: “我國人爲公爲私往來濟州, 或遭風無去處者, 不可枚悉。終能生還者, 十百僅一二。是豈盡沈於海波乎? 其漂入島夷, 若暹羅、占城之國者, 無復望還, 雖或漂至中國之界, 亦爲邊人所誤, 誣以倭賊, 折械受賞, 則誰能辨其情乎?”

6) 현재의 태국

7) 1~2세기경 인도차이나 반도에 건국되었던 참파국의 중국식 이름

『제주계록』에 기록된 해난사고의 내용을 보면 조난자의 대부분은 제주도 남자들이지만, 해초를 채취하던 여자 역사 해난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제주계록』에 기록된 표류사고의 건수에 비해 조선으로 살아서 귀환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로 기록된다. 지리적으로 볼 때 연근해에서 먼 바다로 표류해 갈 경우, 일본의 최북단인 北海道에서 남쪽의 九州지역까지, 또 琉球國에서 대만에 이르기까지 태평양 상에 그물처럼 걸쳐있는 도서지역이 표류민의 생사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외국의 섬지역으로 표류해 가는 경우에는 이미 당시 동북아 국가 간에 존재했던 귀환체제에 따라 귀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섬 사이로 빠져 태평양의 망망대해로 표류해 간 경우에는 생존하거나 귀국한 선례가 한 건도 없었다. 『제주계록』에 기록된 108건의 해난사고의 주요 원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제주도내 해상이동시 재난조우
- 낚시, 해초 채취 등 어로활동 중 재난조우
- 橋類, 黑牛 등 진상선 出陸시 재난조우
- 육지와 무역활동을 위한 해상이동 중 재난조우
- 양곡, 땀감, 船材, 砂器 등 화물 운반 도중 재난조우

『제주계록』 중의 조난자 1,220명의 해난사고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漂流   | 生還   | 失蹤   | 生存  | 溺死  | 餓死  | 病死 |
|------|------|------|-----|-----|-----|----|
| 444명 | 451명 | 191명 | 54명 | 51명 | 22명 | 7명 |

제주 연근해에서 생존한 사람과 외국을 경유해 생환한 사람은 모두 505명이었고, 실종되거나 익사, 또는 조선으로의 귀환 도중에 아사하거나 병사한 사람은 모두 271명이다. 생사여부는 물론 외국으로의 표류여부 또한 전혀 알 수 없이 망망대해로 표류해 간 것으로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444명이다. 제주도민이 외국으로 표류해 간 경우 대부분 중국, 일본, 琉球등으로 표류해 갔다. 살아서 귀환한 경우를 보면, 중국

경유 귀환 18회, 일본경유 귀환 26회, 琉球경유 귀환 5회, 이양선에서 구조되어 중국을 거쳐 일본, 대마도등을 거쳐 귀환한 경우가 1회이다.

## 2.2 海難事故의 보고체계

해난사고의 조난자 대부분은 작은 목선이나 통나무배인 테우를 타고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낚시, 해초 채취 등을 하다가 갑작스런 돌풍을 만나 전복되어 익사하거나 바람에 밀려 국내외의 먼 곳으로 표류하였다. 작은 목선이 침몰하거나 전복, 파손됨으로 해서 육지와 가까운 사고 현장에서 익사자가 발생하고 그 시신을 수습하게 되면 즉시 관아에 보고되었다. 그러나 해상에서 행방불명이 되거나 표류하여 그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로 약 3개월의 시간을 두고 조난자의 행방을 수색한 후에 계문을 올려 보고하였다. 행방불명되었거나 표류한 자에 대한 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금년 2월 25일에 도착한 제주판관 宋益烈의 공문 내용 중에 “제주 左面 無注里의 書員<sup>9)</sup> 鄭就範, 文尙欽, 旗手<sup>10)</sup> 高連得과 신조이(申召史)<sup>11)</sup> 등 4명이 지난 해 12월 23일에 함께 한 척의 배에 타고 旌義縣 吾照浦에서 마을로 돌아올 때 갑자기 거센 바람을 만나 표류하였습니다”라고 한 바, 안으로 각 포구로부터 밖으로 여러 섬에 이르기까지 널리 수색하여 찾게 하였으나, 지금 석 달이 지나도록 끝내 머무른 곳을 알 수 없으니 만약 대양에서 익사한 것이 아니면 반드시 異域으로 표류해 갔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니 진실로 매우 비참하고 가련한 연유를 아울러 급히 보고 하므로, 절차에 따라 잘 아뢰어 주십시오. 도광26년(현종12년, 1846) 3월 28일<sup>12)</sup>

8) 본 논문에서는 2012년 고창석, 김상옥 역으로 재출간된 『濟州啓錄』의 내용을 그대로 실으며, 이하 모두 재출간본을 기준으로 한다. 『濟州啓錄』, 29쪽

9) 조선시대 常民職役에 속하던 신분

10) 조선시대 常民職役에 속하던 신분

11) ‘召史(또는 召吏)’는 이두문자로 ‘조이’라고 읽으며, 성씨 밑에 붙여 과부임을 나타내는 호칭이다.

12) “今二月二十五日到付濟州判官宋益烈牒報內, 本州左面無注里書員鄭就範、文尙欽、旗手高連得及申召史等四名, 去年十二月二十三日共乘一船自旌義縣吾照浦回來船村之際, 猝遇大風

위 계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주도 사람들은 해난사고를 당했을 때, 약 3개월을 기다렸다가 더 이상 소식이 없을 경우에는 ‘물에 빠져 익사하여 물고기의 밥이 되었거나(魚腹之魂)’이 되거나 이역만리 외국으로 표류했을 것이라고 여겼다. 일찍이 崔斗燦(1779~1821)은 1817년 제주목사로 재임 중인 장인을 만나러 제주에 갔다가 이듬해인 1818년 육지로 돌아오는 도중에 중국으로 표류했다. 그는 6개월여 만에 귀환하여 『乘槎錄』이라는 표류기를 남겼는데 그의 『승사록』 「追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제주도 아녀자들의 노랫말 중에 “강남으로 표류하면 삼년 만에 돌아올 수 있고, 일본으로 표류하면 석 달 만에 돌아올 수 있다네”라는 말이 있다. 이때에 이르러 여섯 달 만에 조선으로 돌아오니 제주도 사람들이 또 말하길 “표류한 배가 있고나서 조선으로 돌아옴에 이와 같이 빨랐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했다.<sup>13)</sup>

이와 같이 제주도민들은 일본이나 중국으로 표류해 갔을 경우 반드시 살아서 귀환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 소요기간까지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해난사고 발생 후 3개월을 기다렸다가 보고하는 것은 살아서 생활할 수도 있다는 제주도민들의 경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III. 제주도민의 출신지 위장

『제주계록』이 기록된 19세기 이전에도 제주도에서는 이미 수많은 해난사고가 발생했다. 해외표류 사고 중에는 갑작스런 돌풍이나 태풍 등으로 뜻하지 않게 표류

回爲漂流是如爲白有所，內自各浦外及諸島加搜探而今過三朔終無止泊處，如非滄沒大洋必是漂越異域，今此人物之莫知死生，誠極慘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是郎旆，詮此善啓向教是事。道光二十六年三月二十八日”

- 13) “濟州有兒女歌曰：“江南三歲歸，日本三月歸。”至是六月而回國，濟人亦曰：“自有漂船以來，回國之神速，未有如此行也。”  
『승사록, 조선 선비의 중국 강남 표류기』, 최두찬 지음, 박동욱 옮김, 휴머니스트, 536쪽, 2011.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해류의 흐름이나 바닷길에 능숙했던 뱃사람 중에 고의로 중국에 표류했다가 귀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일찍이 高閑祿 같은 사람은 1827년, 1833년, 1836년, 1837년에 4차례에 걸쳐 고의로 중국으로 표류를 했다가 나중에 발각되어 처형을 당하기도 하였다.<sup>14)</sup> 현종7년(1841)에 제주목사를 지냈던 李源祚(1792~1872)의 문집인 『凝窩全集』<sup>15)</sup>에 수록되어 있는 『耽羅啓錄』에도 제주도민의 고의표류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계문이 수록되어 있다.<sup>15)</sup> 또한 당시에는 중국, 일본, 琉球 등의 외국선박이 조선으로 표류해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인 중에 표류 중국인 행세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 같다.<sup>16)</sup> 이에 따른 대책으로 『續大典』의 刑典에는 조선으로 표류해온 중국인 행세를 하는 사람을 즉시 처형한다는 항목이 있을 정도였다.<sup>17)</sup>

『제주계록』의 기록을 보면 제주도민이 외국으로 표류하여 현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모두 하나같이 자신들의 출신지역을 전라도 海南, 康津, 靈巖 등으로 위장했었다. 표류에 관해 가장 일차적이고 종합적인 자료<sup>18)</sup>라고 할 수 있는 『漂人領來瞻錄』<sup>19)</sup>에서는 이를 ‘換名’이나 ‘托稱’이라고 표현했다. 표류 연구가인 정성일의 연구에 따르면, 1592년에서 1909년까지 발생했던 제주도민의 해난사고 150건 중에서 자신

14) 劉序楓, 「近世東亞海域의 僞裝漂流事件: 道光年間 朝鮮 高閑祿의 中國漂流事例를 中心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45권, 2009.

15) 李源祚, 『凝窩全集』, 驪江出版社, 1986

“...이런 까닭에 몇 년 전 제주도 백성 高閑祿(高閑祿)이 누차에 걸쳐 고의로 표류한 죄로 상부에 보고되어 효시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표류한 사람들은 모두 생활 근거지도 없고 한결같은 마음도 없는 떠돌이들로 그들의 행적을 살펴보면 역시 심히 의심이 되므로 모두 붙잡아 자세히 조사하기 전에는 정대손 한 사람의 말만을 듣고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본도에서 충분히 죄인들을 쫓아가 잡을 수 있다고 하니, 그들을 붙잡아 입송한 후 엄히 그들의 죄상을 규명할 것입니다. ...”(…故年前州民高閑祿以屢次故漂流之罪至有啓聞臬示之事。今此漂還諸人皆是無根着無恆心之類，究其情跡亦甚可疑，而捕捉盤問之前，不可以大孫一人之言據成斷案是白如乎，方自本道多般跟捕云，待其捕捉入送後嚴加究覈…)

16) 원종민,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의 유형과 그 사회적 영향」, 『중국학연구』 제44집, 2008, 249쪽.

17) 『續大典』 「刑典」: “성명을 바꾸어 표류 중국인을 사칭하여 촌민들을 속이고 국가를 기망한 자는 즉시 참형에 처한다.(變易姓名, 詐稱漂漢人, 誑惑村民欺罔國家者, 不待時斬)”

18) 하우봉,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의 일본인식」,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 연구』, 117쪽.

19) 『漂人領來瞻錄』에는 인조19년(1641)에서 영조27년(1751)까지 110년간 발생했던 표류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들의 출신지를 속인 사례는 97건이나 된다.<sup>20)</sup> 『제주계록』에는 제주도민이 외국으로 표류했다가 귀국한 것이 모두 49건 기록되어 있다. 중국으로 표류했다가 귀환한 경우는 18회였고, 일본에서의 귀환은 26회, 琉球에서의 귀환은 5회였다. 제주도민들은 어느 나라로 표착했든지 간에 자신들이 제주 출신이 아니라고 출신지를 위장했다. 다음은 제주도민들이 국외 표류에서 생환하여 국내 조사를 받을 당시 출신지를 위장했었다고 구술했던 내용이다.

- 제주인이 이국에 표류하면 반드시 다른 지방으로 속여서 말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曾聞濟州人之漂入異國也必諱稱他地方

- 제주인이 이국에 표류하였을 때에도 제주라고 칭하기를 꺼리는 예

濟州人之漂入異國也諱稱濟州之例

- 제주인이 이국에 표류했을 때 제주를 숨기고 다른 곳을 칭한다는 예를 이미 들은 바 있다.

濟州人漂入異國也諱稱濟州已聞其例

- 제주인이 이국에 표류하였을 때에 제주를 속이고 말한다는 예를 이미 들은 적이 있다.

濟州人之漂入異國諱稱濟州已聞其例

- 제주인이 다른 나라에 표류하였을 때에 제주를 속여서 칭한다는 예를 들은 적이 있다.

曾聞濟人之漂入異國諱稱濟州自是有例

- 제주인이 이국에 표류하였을 때 거주지를 속여서 칭하는 예를 들은 적이 있다.

曾聞濟人之漂入異國諱稱居住之例

- 제주인이 이국에 표류하였을 때에 속여서 칭한다는 예를 이미 들은 적이 있다.

濟人之漂入異國已聞諱稱之例

20) 제주일보 2009. 03.20일 기사 참조



- 일찍이 제주인이 이국에 표류하였을 때 다른 지방으로 속여서 칭한다는 예를 들은 적이 있다.  
曾聞濟人之漂入異國也諱稱他地方之例
- 제주인이 이국에 표류하였을 때 다른 지방으로 속여 칭한다는 예를 이미 들은 적이 있다.  
濟人之漂入異國諱稱他地方已聞其例
- 저희들은 표류한 사람들이 제주를 속이고 말한다는 예에 따라서  
矣等依漂流人諱稱濟州之例
- 저희들은 제주를 속이고  
矣等諱稱濟州
- 한결같이 제주를 속여서 칭하는 예에 따라  
一依諱稱濟州之例
- 제주를 속이고  
故亦諱濟州

중국으로 표류했던 제주목 김상로 등이 생환하여 조사를 받은 『제주계록』1847년 6월 16일의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그들이 글로 써서 사는 지방과 표류한 상황을 물은 바, 제주인이 이국에 표류하였을 때에 제주를 숨기고 다른 곳을 칭한다는 예를 이미 들은 바 있으므로, ‘조선국 전라도 해남현 사람으로 행상차 바다에 나갔다가 바람을 만나 표류하였다’고 대답하고, 저희들도 도착한 지방을 물었더니 ‘大清國 浙江省 寧波府 象山縣 石浦鎮’이라 하였습니다.<sup>21)</sup>

그러면 제주도민들은 왜 하나같이 그들의 출신지를 속여야 했을까? 일본인 학자 이케우치 사토시(池內 敏)는 제주도민들이 출신지를 속여 말했던 것을 ‘詐稱’이라고 했는데, 그들의 의식구조에 대한 그의 설명은 대략 다음과 같다. 즉, 주변국의 표류

21) “彼等以書問矣等所居地方及漂流事狀是白乎所，濟人漂入異國也諱稱濟州已聞其例，故答以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是如是白遣，矣等亦書問其所到地方，則乃大清國浙江省寧波府象山縣石浦鎮。”

민이 제주도에 접근하려다 뜻하지 않게 선박이 파손되어 익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은 익사한 표류민들이 자신들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주변국에 오해되어 적개심의 대상으로 지목받을 것을 우려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제주도민들이 주변국으로 표류해 갔을 경우 보복살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2)</sup> 그의 설명은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느낌이다. 이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의 기록들이 그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하겠다. 제주도민인 金大璜, 高商英, 張漢喆의 실제 표류 경험에 의해 그 원인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다고 하겠다.

#### (1) 제주도민에 대한 보복

먼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주변국 사람들의 제주도민에 대한 실제보복이다. 『제주계록』의 기록보다 160여 년 전인 1687년 9월 3일에 제주 鎭撫 金大璜 등 24명이 지금의 베트남인 安南國 회안부에 표류했다가 1688년 중국 상선을 타고 귀환한 적이 있었다. 김대황이 남긴 『安南漂海錄』<sup>23)</sup>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우리를 이끌고 뚝 안으로 들어가 글을 써서 묻기를: “너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며, 무슨 일로 여기에 왔는가?”라고 하였다. 우리가 고향에 있을 때 일찍이 일본으로 표류하여 떠내려갔다가 살아서 돌아온 사람의 말을 들으니, ‘동남쪽 여러 나라 사람들은 탐라를 ‘바깥고려’라고 부르는데, 바깥고려 사람들이 가장 사납고 악독하여 여러 나라에서 왕래하는 장사배들이 혹 뭍나무나 먹을 물이 부족하거나 혹 배의 기구를 잃어버려 이를 보충하고자 배를 해안가에 가까이 대려하면 병사들을 출동시켜 이를 지키고 뭍나무와 먹을 물을 얻지 못하도록 엄격히 금지하여 해안에 가깝게 오지 못하게 한다. 이 때문에 원한을 품고 그 탐라 사람을 만나면 죽여 버리지 않음이 없다’ 운운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 도착하여 표류 정황을 물을 때 홀연 그 말이 생각이 나서 거짓말로 답을 써서 말하길: “우리들은

22) 池内 敏, 「出身地を詐稱する漂流民」, 『近世日本と朝鮮漂流民』(日本 臨川書店, 1998), 230-238쪽. 민덕기, 「표류민을 통한 정보의 교류」,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 연구』, 102쪽에서 재인용함.

23) 김봉옥, 김지홍 뒤집, 『옛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제주도지회, 2001, 192-193쪽, 원문 347쪽.

조선국 전라도 흥덕현 사람이요...”<sup>24)</sup>하였다.

김대항의 『안남표해록』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안남국으로 표류하기 전 즉 1687년 고향 제주에 있을 때에도 이미 일본으로 표류했다가 귀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외국으로 표류해 갈 경우 복수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는 표류민에 대해 비인도적 태도를 보여주었던 제주도민들에 대한 주변국 사람들의 원망과 분노가 오랜 시간동안 축적되어 온 결과라 하겠다.

## (2) 安南太子 살해설

또 한 가지의 원인은 安南太子 살해설 또는 琉球太子 살해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英宗 丁未년(1727)에 譯學 李齊聘이 제주에서 安南國으로 표류했었던 高商英을 만나 그의 표류 전말을 기록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에 종이와 붓을 꺼내어 어디냐고 물으니 그 사람이 글씨를 써서 대답 하길, “이 땅의 이름은 安南國이다. 너희들은 어느 나라에 살며, 무슨 이유로 여기에 왔느냐?”고 했다. 드디어 대답하기를 조선 사람으로서 표류 하여 왔으니 구제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

또 글자를 써서 보이길, “우리나라의 태자가 일찍이 조선 사람에게 죽음을 당하였으니 우리 나라에서도 또한 마땅히 너희들을 다 죽여서 원수를 갚아야겠다.”고 하였다. 우리들이 글을 보고 소리를 내어 울부짖으니 홀연히 한 부인이 비단옷을 입고 패물을 차고 안에서 나오는데 행동이 단아하여 이상한 향기가 사람을 덮쳤다. 또한 글자를 써 보이길, “너희들은 울지 말라.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인명을 살해하는 일이 없다. 여기에 머물러 있고 싶으면 머무르고, 가고 싶으면 가라” 하고는 군졸을 시켜서 한 섬으로 보내주었다.<sup>25)</sup>

24) “...引我人入庭書問曰:“你等以何國之人, 因何事到這裏?” 我等在本土時, 曾聞漂往日本而生還人言, 則:“東南諸國之人稱耽羅爲‘外高麗’, 而外高麗之人最爲殘惡, 諸國往來商船或乏柴水, 或失船具, 船近海濱, 則發兵守之, 痛禁柴水, 使不得近岸, 以此含怨, 如遇其地之人, 則殺無赦!”云云。故到此問情時忽思其言僞辭答書云:“我等是朝鮮國全羅道興德縣人也。…”

25) 鄭東愈 著, 南晚星 譯, 『書永編(上)』, 乙酉文化社, 1971, 94-102쪽 참조.  
“於是出紙筆問何地方其人書答:“此地號安南國, 爾等在何邦緣何到此?”遂答以朝鮮人漂到因乞

고상영의 경험에 의하면, 안남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 그들의 태자를 살해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그들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였다. 그 후 약 40여년이 지난 1770년에 제주 출신의 장한철은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가다가 유구의 무인도로 표류하였다. 장한철 일행이 일본으로 향하는 안남국 상선의 도움을 받아 구조되어 일본으로 가는 도중 멀리 보이는 한라산을 보고 울부짖음에 안남국 상인들은 그들이 제주도 출신임을 알고 작은 배에 실어 내쫓음으로써 안남국 태자를 살해한 제주도민에 대한 복수를 한다.<sup>26)</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도민들이 외국 표류민에게 비인도적 태도를 보였다는 걸 미루어 볼 때, 안남태자 살해설은 충분히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제주도에는 또 琉球王子殺害說 역시 광범위하게 제주 민간에 퍼져있었다. 이는 광해군때 제주에 표착해온 유구인들을 살해했던 제주목사 李箕寶의 만행에서 비롯된다. 이기빈은 제주목사로 재임하는 동안 제주관관 文希賢과 함께 제주에 표류해온 유구사람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고, 후에 사실이 발각되어 복청으로 유배를 갔다. 그 후 이 사건은 유구왕자 살해설로 확대되어 전 제주도민에게 각인됨으로써 제주도민들이 유구로 표류해 갔을 경우 모두 제주 출신임을 속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sup>27)</sup>

#### IV. 제주도민의 중국 표류와 귀환

이미 진행된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근대 시기에는 이미 동아시아 제국 사이에 해난사고를 당한 표류민을 서로 구호하고 본국으로 송환시켜주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었다. 직접적인 외교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귀환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표

救濟之意……又書示曰：“我國太子曾爲朝鮮人所殺，我國亦當盡殺爾等以報讐”渠等見書放聲號哭，忽一夫人衣錦揚佩自內以出舉止端雅異響襲人，亦以書示云：“爾等勿哭，我國本無殺奚人名之事，欲留則留，欲去則去，使軍卒送置一島。”

26) 자세한 내용은 張漢喆 지음, 鄭炳昱 옮김, 『漂海錄』, 범우사, 1979. 참조

27) 민덕기, 「표류민을 통한 정보의 교류」,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 연구』, 98쪽~102쪽에서 ‘유구상인 살해사건’이 인조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琉球王子殺害說’로 변질되었음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류민의 구호와 송환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본국으로 송환시켜 주었다. 이에 따라 조선과 같은 주변국에서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례에 따라 중국에 사대의 예를 갖춰 사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28)</sup>

#### 4.1 중국의 조선 표류민 구휼내용

중국에 표류한 제주인들은 최초 표착지에서 皇城까지 연결되는 교통로 상의 지역을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규정대로 충분한 음식과 의복 등을 제공받았다. 憲宗13年(1847년 6월 16일)에 기록된 제주 朝天里 출신의 金尙魯등이 받은 구휼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9)</sup>

- ① 1846년 9월 초1일 寧波府 象山縣 石浦鎮의 구휼내용  
“관부에서 생닭과 생오리 각 열 마리, 양 한 마리, 밀가루 세말을 문서로 적어서 내려주고 질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 ② 1846년 9월 18일 상산현의 구휼내용  
“그 현에서 매 일 세 끼니씩 먹여주고 무명 홉바지 한 벌, 두루마기 한 벌, 이부자리 한 벌을 각각 만들어 주고 닳새에 한 번 씩은 돼지고기 네다섯 근을 특별히 먹여 주었습니다. 배의 값은 그들의 돈으로 삼백 냥을 내주고 계속 머물러 살게 하였습니다.”
- ③ 1846년 11월 18일 杭州의 구휼내용

28) ○ 『明宗實錄』 즉위년 11월 12일조 내용: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남세건(南世健),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윤계(尹溪)를 북경에 보내어 사은(謝恩)하고 견해 주문(奏聞) 진하(進賀)하게 하였다. 성절사(聖節使) 이해(李灌) 등에게 일품연(一品宴)을 내려 주고 또 우리 나라 표류인을 쇄환하였기 때문이다.”  
○ 『中宗實錄』 29년 11월 24일조 내용:  
“사신은 논한다. 표류한 외인(外人)들(제주도민)이 거칠고 천박하여 죽히 돌아볼 것이 없는 데도 중국에서 우대하여 그들을 보살펴 준 것이 그처럼 극진하였던 것은, 그들을 소중히 여겨서가 아니라 우리 전하의 중국을 섬기시는 정성이 그렇게 만든 것이니, 정성의 효과가 지극하다 하겠다.”

29) 『제주계록』, 56쪽-57쪽

“아침과 저녁을 먹여주고 무명 양말 한 켤레, 무명 揮項<sup>30)</sup> 한 개, 은자 한 냥 삼십 푼을 주었습니다.”

④ 1847년 1월 초2일 淸河縣의 구휼내용  
“특별히 떡과 고기를 먹여주고 또 한 사람마다 그들의 돈으로 두 냥을 주었습니다.”

⑤ 1847년 3월 초7일  
“저희 일행 중 김재득이 갑자기 발병하여 이내 사망하자 매장하였습니다.”

그러면 제주 표류민들이 받은 구휼금액의 정도는 얼마나 되었을까? 그들이 표류했던 시기보다 20년이 지난 1867년 조선에 표류해 온 청나라 山東省 登州府 상인들의 표류경위를 조사한 問情別單<sup>31)</sup>을 통해 당시 중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와 제주표류민의 얼마만큼의 위로금을 받았는지 대체적인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문: “은전 한 냥은 얼마이며, 은전 한 냥의 값은 은전으로 얼마이나?”  
답: “십전이 한 냥이고, 열 말이 한 십입니다.”  
문: “쌀 한 섬의 값은 은전으로 얼마이며, 은전 한 냥의 값은 동전으로 얼마이나?”  
답: “한 섬의 값은 은전 두 냥 일 전이고, 한 냥의 값은 동전 천 삼백문입니다.”<sup>32)</sup>

위 내용을 근거로 보면, 김상로 등이 배 값으로 받은 보상금 삼백 냥은 당시 중국 물가로 대략 쌀 백오십 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당시 소형어선에 불과했을 제주어선의 사고 보상금치고는 지나치게 많은 액수가 아닐 수 없다. 또 항주에서 각각 은자 삼십 푼, 청하현에서 은전 두 냥을 주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는 제주 관리의 신문에

30) 방한 모자의 일 중  
31) 『제주계록』, 306쪽  
32) 問: “銀錢一兩為幾錢, 米一石為幾斗耶?”  
答: “十錢為一兩, 十斗為一石耳。”  
問: “米一石價, 銀錢為幾許, 銀錢一兩價, 銅錢為幾許耶?”  
答: “一石價, 銀錢為二兩一錢, 一兩價, 銅錢為一千三百文耳。”

응한 표류민의 진술내용에 기록된 것일 뿐 실제 송환과정의 교통로에 위치한 각 지방에서 지급했던 돈을 다 합치면 이 또한 거금이 된다. 표류민을 본국으로 송환해 주는 과정에서 중국 측에서도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었던 것은 대국으로서의 체면과 면모를 유지하기 위한 대국적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제주도민들은 표류했을 경우 죽지 않고 중국으로 무사히 표착하기만 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환과정에서 많은 보상금까지 챙겨올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는 高閑祿과 같은 제주 사람들에게 고의로 중국으로 표류해 가는 계기를 마련해 준 원인이 되었다.

또 표류민의 송환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국과 일본에서의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일본으로 표류한 경우 대략 석 달 정도면 귀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의 시신은 재와 소금 등으로 부패방지를 취한 후 입관하여 국내로 이송하여 가족에게 인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福建省이나 廣東省, 浙江省, 江蘇省 등지에 표착했던 표류민들이 귀환하는 도중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시신 운구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부분 현지에서 바로 입관하여 매장처리 하였다. 皇城에 가까이 도착하였을 경우에는 조사를 받은 후 입관하여 현지에서 매장을 하였다. 이는 일본 표류의 경우와 크게 다른 점이다.

#### 4.2 귀환 과정

중국이 조선 표류민을 본국으로 송환 시키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 먼저 중국의 외교 사신이 직접 조선 표류민을 한양까지 데리고 오는 경우이다. 이때는 조선의 국왕까지 친히 나아가 황제의 칙사를 영접하고 향연을 베풀었다. 또 하나는 북경 朝鮮館에 머무르던 조선 표류민에게 예부에서 역관 한 명과 두세 명의 호송인을 배정하여 義州府까지 호송해 가서 직접 조선 측에 인계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표류민들이 북경의 조선관에 머무르는 동안 중국을 찾아오는 조선의 賚咨官이나 聖節使, 謝恩使 등 중국 방문 사신일행 편에 딸려 보내는 방법이었다. 『제주계록』에 따르면 제주도민이 중국을 경유하여 조선으로 귀환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lt;표2&gt;

| No | 기록연도  |            | 표류민         | 귀환과정  |
|----|-------|------------|-------------|---|
| 1  | 憲宗13年 | 1847.6.16  | 朝天里<br>金尙魯등 | 大清國浙江省寧波府象山縣石浦鎮→杭州→清河縣→雄縣→皇城→<br>譯官과건→義州府           |
| 2  | 哲宗1年  | 1850.9.22  | 朝天里<br>高明祚등 | 大清國福建省海防分處府→福清縣→福建省→皇城→禮部→조선사<br>신에게 인계             |
| 3  | 哲宗2年  | 1851.7.15  | 高内里<br>徐辰行등 | 大清國浙江省瑞安縣→福建省→皇城→禮部→조선사신에게 인계                       |
| 4  | 哲宗4年  | 1853.6.4   | 挾才里<br>文完圭등 | 大清國福建省福寧縣公山島→平潭縣→海口館→福州府→燕州府→<br>皇城→譯官과건→義州府        |
| 5  | 哲宗7年  | 1856.2.12  | 朝天里<br>梁瑞洪등 | 大清國福建省臺灣縣→鎮江府→福州府→水口驛→朝鮮曆官 <sup>33)</sup> 조우<br>→귀국 |
| 6  | "     | 1856.2.12  | 別刀里<br>金應良등 | 大清國八灘司所屬黃河口→阜寧縣→山陽縣→青海巔→長清縣→譯<br>官과건→義州府            |
| 7  | "     | 1856.6.21  | 濟州牧<br>李得光등 | 大清國寶山縣松江浦→長洲縣→皇城→譯官과건→義州府                           |
| 8  | 哲宗8年  | 1857.5.19  | 獨浦里<br>申承祿등 | 大清國杭州界→浙江省→皇城→譯官과건→義州府                              |
| 9  | 哲宗9年  | 1858.4.7   | 咸德里<br>金聲振등 | 大清國廣東省香港島→蘇州府上海縣→長洲縣→清江縣→皇城→譯<br>官과건→義州府            |
| 10 | 高宗4年  | 1867.6.3   | 牛 島<br>馬英등  | 大清國江南福建省福州→皇城→朝鮮館→譯官과건→義州府                          |
| 11 | 高宗5年  | 1868.7.14  | 潛水里<br>金光日등 | 中國廣東地境唐山浦→上海縣→天津→皇城→順天府→朝鮮館→譯<br>官과건→義州府            |
| 12 | 高宗6年  | 1869.6.13  | 獨浦里<br>申順集등 | 大清國福建省晉江縣東浦→福建省→皇城→朝鮮館→義州府                          |
| 13 | "     | 1869.8.22  | 潛水里<br>金辛仕등 | 大清國杭州定海縣→杭州地下浦→蘇州清江縣→皇城→朝鮮館→譯<br>官과건→義州府            |
| 14 | 高宗7年  | 1870.11.15 | 潛水里<br>朴春錄등 | 大清國外島臺灣府→新莊縣→福建省→皇城→朝鮮館→譯官과건→<br>義州府                |
| 15 | 高宗8年  | 1871.1.27  | 別防里<br>張運行등 | 大清國江南所屬登山浦→皇城→朝鮮館→조선賣咨官 <sup>34)</sup> 일행 조우<br>→귀국 |
| 16 | "     | 1871.10.3  | 日果里<br>姜信周등 | 異樣船-清國-日本-對馬島→귀국                                    |
| 17 | 高宗18年 | 1881.10.23 | 大林里<br>李炳奭등 | 大清國福建省惠安縣崇武鎮→福建省→杭州→皇城→朝鮮館→譯官<br>과건→義州府             |
| 18 | 高宗19年 | 1882.4.25  | 溫平里<br>康如弘등 | 大清國江南省崇明縣蘇松鎮→松道→皇城→朝鮮館→譯官과건→義<br>州府                 |



위 표의 내용을 보면 중국 정부에서 역관과 호송인을 배정하여 직접 조선의 의주 부까지 와서 인계하는 방법이 가장 많았다. 또한 북경에서 조선 사신 편에 딸려 귀국 시켜주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성종 때 중국에 표류했던 최부의 『표해록』에 기록된 송환과정과 비교해 볼 때<sup>35)</sup>, 『제주계록』에 기록된 제주도민들의 귀환과정을 보면 대략적이면서도 구체성이 없으며, 심지어 지리적 지식조차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는 제주 출신 표류민이 대부분 소수의 중인출신이거나 양인이하의 신분출신으로 중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문자해독 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V. 결론

표류는 자연재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이지만 표류 사고를 통해 해외 교류, 새로운 異國文化의 접촉, 異國文化의 이해와 전파,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의 확대 등<sup>36)</sup>의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 또 제주도와 같이 표류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에서 표류는 단순한 해난사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이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만의 교육사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sup>37)</sup> 표류는 뜻하지 않은 새로운 사건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855년 제주 함덕리 출신 金耆良은 중국 광둥지역까지 표류해 갔다가 구조되어 1857년 홍콩 파리의방전교회에서 조선 신학생을 통해 세례를 받은 후 입교하였으며, 1858년 제주도에 귀환하여 전교활동을 하다가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를 하였다.<sup>38)</sup> 이처럼 한 건의 단순 표류 사고는 한국

33) 달력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리

34) 조선시대 때 중국 조정에 외교문서인 咨文을 가지고 가던 사신

35) 최부(1454~1504)의 『표해록』에는 중국 표류 136일간의 내용이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의 『표해록』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일본의 승려 엔닌(圓仁)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와 더불어 중국 역사상 3대 기행문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표해록』을 통해 명대 초기의 변경방위체계 및 군사제도, 남북방의 경제와 문화, 운하를 이용하는 교통로, 중국 남북방의 언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36) 하우봉, 「일본에 표착한 조선인의 일본인식」, 『조선시대 한일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2011, 137쪽.

37) 김혜영, 양진건,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動因으로서 표류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제23권제3호, 2009.

천주교 순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거룩한 순교의 발단이 되기도 했다.

『제주계록』에는 많은 제주도민의 국내외 표류사건이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 일본, 유구 등지로 표류했다가 귀환한 제주도민들의 송환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한일 관계사학회에서는 이미 조선시대 한일 표류민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고, 또 그 연구 성과 역시 괄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중관계사 연구방면에서 표류는 아직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조선인의 중국 표류에 관한 사건과 기록은 육로를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는 한중관계사에서 볼 수 없는 또 다른 측면의 한중관계의 단면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방면의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8) 디지털제주문화대전([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0700335](http://jeju.grandculture.net/Contents/Index?contents_id=GC00700335)) '김기량 순교비' 참조, 또 평화신문 2012.3.4. 1165호 기사 참조  
 '디지털제주문화대전'의 기사내용은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제주계록』의 기록과 차이가 있다. 제주 함덕리 金耆良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모슬포로 향하다가 표류되었다는 보고는 1857년 기록이다. 그와 함께 표류한 사람은 소홀리 家率 文英煥, 건입리 閑良 朴潤根, 무주리 貢生 韓行文, 변막리 船格 文光哲이다. 1858년 중국 광공성 홍콩에서 귀환한 사람에 관한 보고를 보면, 표류했다가 생환한 사람은 함덕리 金聲振, 格卒 文英煥, 朴植根, 文光哲, 韓恒文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좀 더 비교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葛振家 著, 域外漢籍『崔溥漂海錄』評註, 線裝書局, 2002
- 강창룡 외, 『19세기제주사회연구』, 일지사, 1997
- 고창석, 「『濟州啓錄』에 나타난 濟州漂到皮人の 實態」, 『耽羅文化』13호, 1993
- 김봉옥, 김지홍 뒤집, 『옛제주인의 표해록』, 전국문화원연합제주도지회, 2001
- 김혜영, 양진건, 「조선조 제주교육사 형성의 動因으로서 표류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제23권 제3호, 2009
- 王天泉, 『漂海錄을 통해본 明代朝鮮 漂流民의 救助 研究』,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원종민, 「조선에 표류한 중국인의 유형과 그 사회적 영향」, 『중국학연구』 제44집, 2008
- 李源祚, 『응와전집』(전4책), 여강출판사, 1986
- 鄭東愈 著, 南晚星 譯, 『晝永編(上,下)』, 乙酉文化社, 1971
- 제주발전연구원, 『濟州啓錄』, 2012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사료와 설화속의 중국』, 2012
- 최두찬 지음, 박동욱 옮김, 『승사록, 조선 선비의 중국 강남표류기』, 휴머니스트, 2011
- 한일관계사학회, 『조선시대 한일표류민 연구』, 국학자료원, 2011
- 韓國學文獻研究所編, 『續大典』, 亞細亞文化社, 1983
- 홍순만, 「濟州牧使에 관한 序說」, 『濟州道史研究』 창간호, 1991

## 부록1. 『濟州啓錄』 중의 海難事故기록

| 사고 | 기록연도  | 조난자   | 조난지점 또는 표류지점         | 사고유형                           |
|----|-------|-------|----------------------|--------------------------------|
| 1  | 道光26年 | 憲宗12年 | 1846.3.28 鄭就範 등 4명   | 정의현오조포 표류                      |
| 2  | "     | "     | 1846.6.3 洪世範 등 3명    | 제주 앞바다 표류                      |
| 3  | "     | "     | 1846.7.10 姜重吉 등 3명   | 日本國對馬島수리浦 생환                   |
| 4  | "     | "     | 1846.9.3 池允元 등 3명    | 제주 앞바다 표류                      |
| 5  | "     | "     | 1846.9.9 蔡 哲 등 5명    | 제주 우도 앞바다 실종4, 익사1             |
| 6  | 道光27年 | 憲宗13年 | 1847.1.10 金泰振 등 26명  | 제주 화북진 앞바다 표류                  |
| 7  | "     | "     | 1847.3.11 金泰鎭 등 26명  | 日本國對馬島수리村 생환                   |
| 8  | "     | "     | 1847.6.16 金尙魯 등 16명  | 大清國浙江省寧波府象山縣石浦鎮 생환14, 병사2      |
| 9  | 道光28年 | 憲宗14年 | 1848.3.1 高連得 등 114명  | 강진현 신지도 관할 여서도 외양 표류111, 익사3   |
| 10 | "     | "     | 1848.12.15 文京祿 등 18명 | 日本國五島 생환                       |
| 11 | "     | "     | 1848.12.15 金永祿 등 8명  | 日本國五島松浦 생환                     |
| 12 | "     | "     | 1848.12.20 高京好 등 5명  | 제주가파도앞바다 표류                    |
| 13 | 道光29年 | 憲宗15年 | 1849.5.24 姜振玉 등 16명  | 영암군 보길도 앞바다 침몰 생존14, 실종2       |
| 14 | "     | "     | 1849.7.20 金南淑 등 5명   | 영암군 보길도 앞바다 표류 생존1, 익사3, 실종1   |
| 15 | "     | "     | 1849.11.2 高宗列 등 7명   | 제주 종달리 앞바다 표류                  |
| 16 | "     | "     | 1849.11.2 安成訓 등 15명  | 정의현 신령리 앞바다 표류                 |
| 17 | 道光30年 | 哲宗1年  | 1850.3.28 白宗玉 등 21명  | 전라도 영암군 소안도 앞바다 생존1, 익사1, 실종19 |
| 18 | "     | "     | 1850.5.10 文大連 등 5명   | 제주 조천포 앞바다 표류                  |
| 19 | "     | "     | 1850.9.2 夫平連 등 10명   | 제주우도앞바다 생존6, 익사4               |
| 20 | "     | "     | 1850.9.2 宋世吉 등 6명    | 제주 방두포 앞바다 생존4, 익사2            |
| 21 | "     | "     | 1850.9.22 高明祥 등 15명  | 大清國福建省海防分處府 생환                 |
| 22 | "     | "     | 1850.11.20 韓明完 등 2명  | 日本國五島 생환                       |
| 23 | "     | "     | 1850.11.22 金光周 등 10명 | 제주 고내리 앞바다 표류                  |
| 24 | 咸豐1年  | 哲宗2年  | 1851.4.10 文乃敏 등 5명   | 日本國是羅島 생환                      |
| 25 | "     | "     | 1851.4.18 任尙日 등 7명   | 琉球國鶴島 생환                       |
| 26 | "     | "     | 1851.6.21 任吉尙 등 4명   | 제주 명월 앞바다 표류                   |
| 27 | "     | "     | 1851.6.21 愼東訓 등 9명   | 제주우도앞바다 생존2, 표류7               |
| 28 | "     | "     | 1851.6.22 高啓雲 등 10명  | 제주 에월진 락지리 앞바다 표류              |
| 29 | "     | "     | 1851.6.22 高應明 등 9명   | 제주 에월진 고내리 앞바다 표류              |
| 30 | "     | "     | 1851.7.15 徐辰行 등 10명  | 大清國浙江省瑞安縣 생환                   |
| 31 | "     | "     | 1851.9.24 金汝信 등 12명  | 충청도 태안군 북면 관송리 앞바다 실종          |
| 32 | "     | "     | 1851.11.27 康宗悅 등 3명  | 제주 정의현 신산리 앞 바다 표류             |

『濟州啓錄』에 기록된 19세기 제주도민의 해난사고와 중국표류 ■ 원종민 317

|    |      |      |            |           |                 |                |
|----|------|------|------------|-----------|-----------------|----------------|
| 33 | "    | "    | 1851.12.3  | 金雲玉 등 3명  | 제주 어등리 앞바다      | 표류             |
| 34 | "    | "    | 1851.12.25 | 金以赫 등 5명  | 대정현 송악산 앞바다 침몰  | 실종             |
| 35 | 咸豐2年 | 哲宗3年 | 1852.10.16 | 韓光才 등 17명 | 제주 앞바다          | 생존4, 익사10, 실종3 |
| 36 | "    | "    | 1852.11.6  | 吳應周 등 3명  | 제주 모슬포 앞바다      | 표류             |
| 37 | "    | "    | 1852.12.17 | 高雲鶴 등 8명  | 제주 명월진 앞바다      | 표류             |
| 38 | "    | "    | 1852.12.19 | 梁永春 등 5명  | 제주 위미포 앞바다      | 표류             |
| 39 | "    | "    | 1852.12.24 | 梁九煥 등 6명  | 제주 대정 앞바다       | 표류             |
| 40 | 咸豐3年 | 哲宗4年 | 1853.2.2   | 康才祿 등 5명  | 제주 경의현지기도       | 생존1, 익사2, 실종2  |
| 41 | "    | "    | 1853.3.19  | 李彦辰 등 3명  | 日本國 烏島          | 생환             |
| 42 | "    | "    | 1853.6.4   | 文完圭 등 8명  | 大清國福建省福寧縣所屬公山島  | 생환             |
| 43 | "    | "    | 1853.11.19 | 佐汝恩 등 4명  | 제주 차귀진 앞바다      | 실종             |
| 44 | 咸豐4年 | 哲宗5年 | 1854.2.6   | 梁明煥 등 6명  | 日本國薩摩島所屬屋久島     | 생환             |
| 45 | "    | "    | 1854.3.1   | 李鶴良 등 33명 | 전라도 영암군 소안도 앞바다 | 표류             |
| 46 | "    | "    | 1854.6.14  | 吳信孝 등 3명  | 제주 경의현 상원리 앞바다  | 표류             |
| 47 | "    | "    | 1854.6.26  | 金宗彦 등 7명  | 제주 세화리 앞바다      | 표류             |
| 48 | 咸豐5年 | 哲宗6年 | 1855.2.2   | 高亨賢 등 3명  | 제주우도앞바다         | 익사1, 실종2       |
| 49 | "    | "    | 1855.3.3   | 李鶴良 등 46명 | 日本國女島           | 생환40, 2차표류6    |
| 50 | "    | "    | 1855.3.3   | 金宗彦 등 7명  | 日本國五島沙浦         | 생환             |
| 51 | "    | "    | 1855.3.16  | 高奉益 등 7명  | 제주 화북포 앞바다      | 표류             |
| 52 | "    | "    | 1855.3.17  | 禹光連 등 2명  | 日本國五島           | 생환             |
| 53 | "    | "    | 1855.5.18  | 高尚九 등 4명  | 명월진 비양도 앞바다     | 실종             |
| 54 | "    | "    | 1855.6.18  | 尹光祿 등 5명  | 제주우도앞바다         | 표류             |
| 55 | "    | "    | 1855.10.21 | 金益良 등 9명  | 제주 화북포 앞바다      | 표류             |
| 56 | "    | "    | 1855.12.16 | 韓致得 등 3명  | 제주 보한리 앞바다      | 표류             |
| 57 | 咸豐6年 | 哲宗7年 | 1856.2.12  | 梁瑞洪 등 5명  | 大清國福建省臺灣縣       | 생환4, 실종1       |
| 58 | "    | "    | 1856.2.12  | 李在汀 등 6명  | 琉球國大島           | 2차표류           |
| 59 | "    | "    | 1856.2.12  | 金應良 등 9명  | 大清國八灘司所屬黃河口     | 생환             |
| 60 | "    | "    | 1856.6.21  | 李得光 등 10명 | 大清國黃山縣松江浦       | 생환             |
| 61 | "    | "    | 1856.8.25  | 金應老 등 8명  | 전라도 영암군 소안도 앞바다 | 생존1, 실종6       |
| 62 | "    | "    | 1856.9.15  | 高奉益 등 7명  | 日本國五島大伊厚村       | 생환             |
| 63 | "    | "    | 1856.9.15  | 李寬梯 등 5명  | 日本國五島長吉浦        | 생환             |
| 64 | "    | "    | 1856.10.13 | 金興福 등 10명 |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 앞바다 | 생존4, 익사6       |
| 65 | "    | "    | 1856.12.13 | 張宗甲 등 20명 | 제주 명월진 앞바다      | 표류             |
| 66 | 咸豐7年 | 哲宗8年 | 1857.3.13  | 韓致得 등 3명  | 琉球國薄山島          | 생환2, 병사1       |
| 67 | "    | "    | 1857.5.14  | 尹光祿 등 3명  | 제주 건입포 앞바다      | 실종             |
| 68 | "    | "    | 1857.5.14  | 金善良 등 5명  | 제주 서귀포진 모슬포 앞바다 | 표류             |
| 69 | "    | "    | 1857.윤5.19 | 申承祿 등 8명  | 大清國杭州界          | 생환             |

|     |       |      |            |           |                   |              |
|-----|-------|------|------------|-----------|-------------------|--------------|
| 70  | "     | "    | 1857.10.21 | 金用凡 등 3명  | 제주 우도 앞바다         | 익사           |
| 71  | "     | "    | 1857.10.22 | 高致禹 등 6명  | 大清國福鼎縣            | 생환5,명사1      |
| 72  | 咸豐8年  | 哲宗9年 | 1858.2.16  | 白多基 등 3명  | 제주 대정현 금물포 앞바다    | 표류           |
| 73  | "     | "    | 1858.2.25  | 尹明順 등 6명  | 제주 조천포 앞바다        | 실종           |
| 74  | "     | "    | 1858.3.20  | 白仁孝 등 5명  | 제주 정의현 가파도 앞바다    | 익사1,실종4      |
| 75  | "     | "    | 1858.4.7   | 金聲振 등 5명  | 大清國廣東省香港島(이양선구조)  | 생환           |
| 76  | 同治5年  | 高宗3年 | 1866.12.19 | 韓才希 등 5명  | 제주 정의군 앞바다        | 실종           |
| 77  | 同治6年  | 高宗4年 | 1867.5.10  | 姜始綱 등 7명  | 日本國五島大貨村          | 생환           |
| 78  | "     | "    | 1867.6.3   | 馬英 등 6명   | 大清國江南福建省福州(이양선구조) | 생환           |
| 79  | "     | "    | 1867.6.27  | 李世勛 등 14명 | 日本國五島             | 생환           |
| 80  | "     | "    | 1867.7.28  | 文白益 등 15명 | 琉球國大島             | 생환           |
| 81  | "     | "    | 1867.9.8   | 金大行 등 6명  | 日本國對馬島完村          | 생환           |
| 82  | "     | "    | 1867.12.11 | 金時萬 등 3명  | 제주 괴리 앞바다         | 익사2,실종1      |
| 83  | 同治7年  | 高宗5年 | 1868.3.4   | 金仁學 등 8명  | 제주 조천포 앞바다        | 익사2,실종6      |
| 84  | "     | "    | 1868.3.4   | 康南基 등 89명 | 표류지 미상            | 표류           |
| 85  | "     | "    | 1868.7.7   | 趙仁敏 등 4명  | 제주 가파도 앞바다        | 익사3,실종1      |
| 86  | "     | "    | 1868.7.9   | 李壽亨 등 5명  | 日本國對馬島琴浦          | 생환           |
| 87  | "     | "    | 1868.7.14  | 金光日 등 21  | 中國廣東地境崖山浦         | 생환1,익사20     |
| 88  | "     | "    | 1868.11.6  | 玄升洛 등 2명  | 日本國五島             | 생환1,2차표류1    |
| 89  | "     | "    | 1868.11.6  | 牟順元 등 18명 | 日本國長崎島            | 생환           |
| 90  | "     | "    | 1868.11.6  | 梁浩法 등 57명 | 日本國五島青方村          | 생환           |
| 91  | "     | "    | 1868.12.25 | 高平連 등 6명  | 日本國五島             | 생환           |
| 92  | 同治8年  | 高宗6年 | 1869.5.18  | 高汝夢 등 5명  | 日本國對馬島            | 생환           |
| 93  | "     | "    | 1869.6.13  | 申順集 등 9명  | 大清國福建省晉江縣東浦       | 생환8,익사1      |
| 94  | "     | "    | 1869.6.28  | 李寬忠 등 20명 | 영암 소안도 남쪽 바다      | 생존3,익사1,실종16 |
| 95  | "     | "    | 1869.8.22  | 金辛仕 등 9명  | 大清國杭州定海縣          | 생환           |
| 96  | 同治9年  | 高宗7年 | 1870.4.26  | 梁洛信 등 73명 | 제주별도포앞바다          | 생존2,익사4,실종67 |
| 97  | "     | "    | 1870.6.13  | 金光訓 등 10명 | 日本國五島所屬玉津浦        | 생환           |
| 98  | "     | "    | 1870.6.13  | 高京云 등 10명 | 日本國五島             | 생환7,명사3      |
| 99  | "     | "    | 1870.7.9   | 李升云 등 21명 | 제주 가파도 앞바다        | 생존11,실종9     |
| 100 | "     | "    | 1870.9.14  | 金己律 등 8명  | 제주 건입리 앞바다        | 익사2,실종6      |
| 101 | "     | "    | 1870.11.15 | 朴春錄 등 12명 | 大清國外島臺灣府          | 생환11,익사1     |
| 102 | "     | "    | 1870.12.6  | 李連明 등 2명  | 日本國五島             | 생환           |
| 103 | 同治10年 | 高宗8年 | 1871.1.27  | 張運行 등 3명  | 大清國江南所屬登山浦        | 생환           |
| 104 | "     | "    | 1871.7.26  | 姜千孫 등 11명 | 日本國對馬島            | 생환           |
| 105 | "     | "    | 1871.9.12  | 李大有 등 6명  | 琉球國所屬久米島          | 생환           |
| 106 | "     | "    | 1871.10.3  | 姜信周 등 5명  | 異樣船-清國-日本-對馬島     | 생환           |

|     |       |       |            |            |                    |                |
|-----|-------|-------|------------|------------|--------------------|----------------|
| 107 | 光緒7年  | 高宗18年 | 1881.10.23 | 李炳吳 등 7명   | 大清國福建省惠安縣崇武鎮       | 생환             |
| 108 | 光緒8年  | 高宗19年 | 1882.4.25  | 康如吼 등 2명   | 大清國江南省崇明縣蘇松鎮       | 생환             |
| 사고  | 기록연도  |       |            | 조난자        | 조난지점 또는 표류지점       | 사고유형           |
| 1   | 道光26年 | 憲宗12年 | 1846.3.28  | 鄭毓籟 등 4명   | 정의현오조포             | 표류             |
| 2   | "     | "     | 1846.6.3   | 洪世籟 등 3명   | 제주 앞바다             | 표류             |
| 3   | "     | "     | 1846.7.10  | 姜重吉 등 3명   | 日本國對馬島今里浦          | 생환             |
| 4   | "     | "     | 1846.9.3   | 池允元 등 3명   | 제주 앞바다             | 표류             |
| 5   | "     | "     | 1846.9.9   | 蔡哲 등 5명    | 제주 우도 앞바다          | 실종4, 익사1       |
| 6   | 道光27年 | 憲宗13年 | 1847.1.10  | 金泰振 등 26명  | 제주 화북진 앞바다         | 표류             |
| 7   | "     | "     | 1847.3.11  | 金泰嶺 등 26명  | 日本國對馬島今里村          | 생환             |
| 8   | "     | "     | 1847.6.16  | 金尙魯 등 16명  | 大清國浙江省寧波府象山縣石浦鎮    | 생환14, 명사2      |
| 9   | 道光28年 | 憲宗14年 | 1848.3.1   | 高連得 등 114명 | 강진현 신지도 관할 여서도 외양  | 표류111, 익사3     |
| 10  | "     | "     | 1848.12.15 | 文京祿 등 18명  | 日本國五島              | 생환             |
| 11  | "     | "     | 1848.12.15 | 金永祿 등 8명   | 日本國五島松浦            | 생환             |
| 12  | "     | "     | 1848.12.20 | 高京好 등 5명   | 제주가파도앞바다           | 표류             |
| 13  | 道光29年 | 憲宗15年 | 1849.5.24  | 姜振玉 등 16명  | 영암군 보길도 앞바다 침몰     | 생존14, 실종2      |
| 14  | "     | "     | 1849.7.20  | 金南淑 등 5명   | 영암군 보길도 앞바다 표류     | 생존1, 익사3, 실종1  |
| 15  | "     | "     | 1849.11.2  | 高宗列 등 7명   | 제주 중달리 앞바다         | 표류             |
| 16  | "     | "     | 1849.11.2  | 安成訓 등 15명  | 정의현 신평리 앞바다        | 표류             |
| 17  | 道光30年 | 哲宗1年  | 1850.3.28  | 白宗玉 등 21명  | 전라도 영암군 소안도 앞바다    | 생존1, 익사1, 실종19 |
| 18  | "     | "     | 1850.5.10  | 文大連 등 5명   | 제주 조천포 앞바다         | 표류             |
| 19  | "     | "     | 1850.9.2   | 夫平連 등 10명  | 제주우도앞바다            | 생존6, 익사4       |
| 20  | "     | "     | 1850.9.2   | 宋世吉 등 6명   | 제주 방두포 앞바다         | 생존4, 익사2       |
| 21  | "     | "     | 1850.9.22  | 高明祚 등 15명  | 大清國福建省海防分處府        | 생환             |
| 22  | "     | "     | 1850.11.20 | 韓明完 등 2명   | 日本國五島              | 생환             |
| 23  | "     | "     | 1850.11.22 | 金光周 등 10명  | 제주 고내리 앞바다         | 표류             |
| 24  | 咸豐1年  | 哲宗2年  | 1851.4.10  | 文乃敬 등 5명   | 日本國是羅島             | 생환             |
| 25  | "     | "     | 1851.4.18  | 任尙日 등 7명   | 琉球國鶴島              | 생환             |
| 26  | "     | "     | 1851.6.21  | 任吉尙 등 4명   | 제주 명월 앞바다          | 표류             |
| 27  | "     | "     | 1851.6.21  | 愼東訓 등 9명   | 제주우도앞바다            | 생존2, 표류7       |
| 28  | "     | "     | 1851.6.22  | 高啓雲 등 10명  | 제주 애월진 각지리 앞바다     | 표류             |
| 29  | "     | "     | 1851.6.22  | 高應明 등 9명   | 제주 애월진 고내리 앞바다     | 표류             |
| 30  | "     | "     | 1851.7.15  | 徐辰行 등 10명  | 大清國浙江省瑞安縣          | 생환             |
| 31  | "     | "     | 1851.9.24  | 金汝信 등 12명  | 충청도 태안군 북면 관송리 앞바다 | 실종             |
| 32  | "     | "     | 1851.11.27 | 康宗悅 등 3명   | 제주 정의현 신산리 앞 바다    | 표류             |
| 33  | "     | "     | 1851.12.3  | 金雲玉 등 3명   | 제주 이등리 앞바다         | 표류             |
| 34  | "     | "     | 1851.12.25 | 金以赫 등 5명   | 대정현 송악산 앞바다 침몰     | 실종             |
| 35  | 咸豐2年  | 哲宗3年  | 1852.10.16 | 韓光才 등 17명  | 제주 앞바다             | 생존4, 익사10, 실종3 |
| 36  | "     | "     | 1852.11.6  | 吳應周 등 3명   | 제주 모슬포 앞바다         | 표류             |
| 37  | "     | "     | 1852.12.17 | 高雲鶴 등 8명   | 제주 명월리 앞바다         | 표류             |
| 38  | "     | "     | 1852.12.19 | 梁永春 등 5명   | 제주 위미포 앞바다         | 표류             |
| 39  | "     | "     | 1852.12.24 | 梁九煥 등 6명   | 제주 대정 앞바다          | 표류             |
| 40  | 咸豐3年  | 哲宗4年  | 1853.2.2   | 康才祿 등 5명   | 제주정의현지기도           | 생존1, 익사2, 실종2  |
| 41  | "     | "     | 1853.3.19  | 李彥辰 등 3명   | 日本國 烏島             | 생환             |
| 42  | "     | "     | 1853.6.4   | 文完圭 등 8명   | 大清國福建省福寧縣所屬公山島     | 생환             |
| 43  | "     | "     | 1853.11.19 | 佐汝恩 등 4명   | 제주 차귀진 앞바다         | 실종             |

|    |      |      |            |          |                   |            |
|----|------|------|------------|----------|-------------------|------------|
| 44 | 咸豐4年 | 哲宗5年 | 1854.2.6   | 梁明煥등 6명  | 日本國薩摩島所屬屋久島       | 생환         |
| 45 | "    | "    | 1854.3.1   | 李德良등 33명 | 전라도 영암군 소안도 앞바다   | 표류         |
| 46 | "    | "    | 1854.6.14  | 吳信孝등 3명  | 제주 정의현 상천리 앞바다    | 표류         |
| 47 | "    | "    | 1854.6.26  | 金宗彦등 7명  | 제주 세화리 앞바다        | 표류         |
| 48 | 咸豐5年 | 哲宗6年 | 1855.2.2   | 高亨賢등 3명  | 제주우도앞바다           | 익사1, 실종2   |
| 49 | "    | "    | 1855.3.3   | 李德良등 46명 | 日本國女島             | 생환40.2차표류6 |
| 50 | "    | "    | 1855.3.3   | 金宗彦등 7명  | 日本國五島沙浦           | 생환         |
| 51 | "    | "    | 1855.3.16  | 高奉益등 7명  | 제주 화북포 앞바다        | 표류         |
| 52 | "    | "    | 1855.3.17  | 禹光連등 2명  | 日本國五島             | 생환         |
| 53 | "    | "    | 1855.5.18  | 高尚九등 4명  | 명월진 비양도 앞바다       | 실종         |
| 54 | "    | "    | 1855.6.18  | 尹光祿등 5명  | 제주우도앞바다           | 표류         |
| 55 | "    | "    | 1855.10.21 | 金益良등 9명  | 제주 화북포 앞바다        | 표류         |
| 56 | "    | "    | 1855.12.16 | 韓致得등 3명  | 제주 보한리 앞바다        | 표류         |
| 57 | 咸豐6年 | 哲宗7年 | 1856.2.12  | 梁瑞洪등 5명  | 大清國福建省臺灣縣         | 생환4, 실종1   |
| 58 | "    | "    | 1856.2.12  | 李在汀등 6명  | 琉球國大島             | 2차표류       |
| 59 | "    | "    | 1856.2.12  | 金應良등 9명  | 大清國八連司所屬黃河口       | 생환         |
| 60 | "    | "    | 1856.6.21  | 李得光등 10명 | 大清國黃山縣松江浦         | 생환         |
| 61 | "    | "    | 1856.8.25  | 金應老등 8명  | 전라도 영암군 소안도 앞바다   | 생존1, 실종6   |
| 62 | "    | "    | 1856.9.15  | 高奉益등 7명  | 日本國五島大伊厚村         | 생환         |
| 63 | "    | "    | 1856.9.15  | 李龍梯등 5명  | 日本國五島長吉浦          | 생환         |
| 64 | "    | "    | 1856.10.13 | 金興福등 10명 | 전라도 영암군 추자도 앞바다   | 생존4, 익사6   |
| 65 | "    | "    | 1856.12.13 | 張宗甲등 20명 | 제주 명월진 앞바다        | 표류         |
| 66 | 咸豐7年 | 哲宗8年 | 1857.3.13  | 韓致得등 3명  | 琉球國薄山島            | 생환2, 병사1   |
| 67 | "    | "    | 1857.5.14  | 尹光祿등 3명  | 제주 권입포 앞바다        | 실종         |
| 68 | "    | "    | 1857.5.14  | 金善良등 5명  | 제주 서귀포진 모슬포 앞바다   | 표류         |
| 69 | "    | "    | 1857.윤5.19 | 申承祿등 8명  | 大清國杭州界            | 생환         |
| 70 | "    | "    | 1857.10.21 | 金用九등 3명  | 제주 우도 앞바다         | 익사         |
| 71 | "    | "    | 1857.10.22 | 高致萬등 6명  | 大清國福鼎縣            | 생환5, 병사1   |
| 72 | 咸豐8年 | 哲宗9年 | 1858.2.16  | 白多基등 3명  | 제주 대정현 금물포 앞바다    | 표류         |
| 73 | "    | "    | 1858.2.25  | 尹明順등 6명  | 제주 조천포 앞바다        | 실종         |
| 74 | "    | "    | 1858.3.20  | 白仁孝등 5명  | 제주 정의현 가과도 앞바다    | 익사1, 실종4   |
| 75 | "    | "    | 1858.4.7   | 金聲振등 5명  | 大清國廣東省香港島(이양선구조)  | 생환         |
| 76 | 同治5年 | 高宗3年 | 1866.12.19 | 韓才希등 5명  | 제주 정의군 앞바다        | 실종         |
| 77 | 同治6年 | 高宗4年 | 1867.5.10  | 姜始國등 7명  | 日本國五島大寶村          | 생환         |
| 78 | "    | "    | 1867.6.3   | 馬英등 6명   | 大清國江南福建省福州(이양선구조) | 생환         |
| 79 | "    | "    | 1867.6.27  | 李世勳등 14명 | 日本國五島             | 생환         |
| 80 | "    | "    | 1867.7.28  | 文白益등 15명 | 琉球國大島             | 생환         |
| 81 | "    | "    | 1867.9.8   | 金大行등 6명  | 日本國對馬島宍村          | 생환         |
| 82 | "    | "    | 1867.12.11 | 金時萬등 3명  | 제주 괴리 앞바다         | 익사2, 실종1   |
| 83 | 同治7年 | 高宗5年 | 1868.3.4   | 金仁學등 8명  | 제주 조천포 앞바다        | 익사2, 실종6   |
| 84 | "    | "    | 1868.3.4   | 康南基등 89명 | 표류지 미상            | 표류         |
| 85 | "    | "    | 1868.7.7   | 趙仁敏등 4명  | 제주 가과도 앞바다        | 익사3, 실종1   |
| 86 | "    | "    | 1868.7.9   | 李壽亨등 5명  | 日本國對馬島琴浦          | 생환         |
| 87 | "    | "    | 1868.7.14  | 金光日등 21  | 中國廣東地境唐山浦         | 생환1, 익사20  |
| 88 | "    | "    | 1868.11.6  | 玄升洛등 2명  | 日本國五島             | 생환1, 2차표류1 |
| 89 | "    | "    | 1868.11.6  | 牟順元등 18명 | 日本國長崎島            | 생환         |



『濟州啓錄』에 기록된 19세기 제주도민의 해난사고와 중국표류 ■ 원종민 321

|     |       |       |            |          |               |                |
|-----|-------|-------|------------|----------|---------------|----------------|
| 90  | "     | "     | 1868.11.6  | 梁浩法등 57명 | 日本國五島青方村      | 생환             |
| 91  | "     | "     | 1868.12.25 | 高平連등 6명  | 日本國五島         | 생환             |
| 92  | 同治8年  | 高宗6年  | 1869.5.18  | 高汝夢등 5명  | 日本國對馬島        | 생환             |
| 93  | "     | "     | 1869.6.13  | 申順集등 9명  | 大清國福建省晉江縣東浦   | 생환8, 아사1       |
| 94  | "     | "     | 1869.6.28  | 李寬忠등 20명 | 영암 소안도 남쪽 바다  | 생존3, 아사1, 실종16 |
| 95  | "     | "     | 1869.8.22  | 金辛仕등 9명  | 大清國杭州定海縣      | 생환             |
| 96  | 同治9年  | 高宗7年  | 1870.4.26  | 梁洛信등 73명 | 제주별도포앞바다      | 생존2, 아사4, 실종67 |
| 97  | "     | "     | 1870.6.13  | 金光訓등 10명 | 日本國五島所屬玉津浦    | 생환             |
| 98  | "     | "     | 1870.6.13  | 高京云등 10명 | 日本國五島         | 생환7, 병사3       |
| 99  | "     | "     | 1870.7.9   | 李升云등 21명 | 제주 가과도 앞바다    | 생존11, 실종9      |
| 100 | "     | "     | 1870.9.14  | 金己律등 8명  | 제주 건일리 앞바다    | 아사2, 실종6       |
| 101 | "     | "     | 1870.11.15 | 朴春錄등 12명 | 大清國外島臺灣府      | 생환11, 아사1      |
| 102 | "     | "     | 1870.12.6  | 李連明등 2명  | 日本國五島         | 생환             |
| 103 | 同治10年 | 高宗8年  | 1871.1.27  | 張運行등 3명  | 大清國江南所屬登山浦    | 생환             |
| 104 | "     | "     | 1871.7.26  | 姜千孫등 11명 | 日本國對馬島        | 생환             |
| 105 | "     | "     | 1871.9.12  | 李大有등 6명  | 琉球國所屬久米島      | 생환             |
| 106 | "     | "     | 1871.10.3  | 姜信周등 5명  | 異樣船-淸國-日本-對馬島 | 생환             |
| 107 | 光緒7年  | 高宗18年 | 1881.10.23 | 李炳吳등 7명  | 大清國福建省惠安縣崇武鎮  | 생환             |
| 108 | 光緒8年  | 高宗19年 | 1882.4.25  | 康如弘등 2명  | 大清國江南省崇明縣蘇松鎮  | 생환             |

부록2. 제주도민의 외국 표류와 출신지 위장의 예

(1) 중국 표류의 경우

| No | 기록연도             | 표류민수         | 표도국가 및 지점       | 출신지 위장의 예               |
|----|------------------|--------------|-----------------|-------------------------|
| 1  | 憲宗13年 1847.6.16  | 朝天里 金尙魯등 16명 | 大清國浙江省寧波府象山縣石浦鎮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2  | 哲宗1年 1850.9.22   | 朝天里 高明祚등 5명  | 大清國福建省海防分處府     | 朝鮮國全羅道康津縣人,新造船隻回還本浦逢風漂流 |
| 3  | 哲宗2年 1851.7.15   | 高內里 徐辰行등 10명 | 大清國浙江省瑞安縣       | 朝鮮國全羅道康津縣人,釣魚次出海逢風漂流    |
| 4  | 哲宗4年 1853.6.4    | 挾才里 文完圭등 8명  | 大清國福建省福寧縣公山島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釣魚次出海逢風漂流    |
| 5  | 哲宗7年 1856.2.12   | 朝天里 梁瑞洪등 5명  | 大清國福建省臺灣縣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6  | " 1856.2.12      | 別刀里 金應良등 9명  | 大清國八灘司所屬黃河口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7  | " 1856.6.21      | 濟州牧 李得光등 10명 | 大清國貴州縣松江浦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8  | 哲宗8年 1857.5.19   | 獨浦里 申承祿등 14명 | 大清國杭州界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釣魚次出海逢風漂到    |
| 9  | 哲宗9年 1858.4.7    | 咸德里 金聲振등 5명  | 大清國廣東省香港島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釣魚次出海逢風漂到    |
| 10 | 高宗4年 1867.6.3    | 牛島 馬英등 6명    | 大清國江南福建省福州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釣魚次出海逢風漂流    |
| 11 | 高宗5年 1868.7.14   | 潛水里 金光日등 21명 | 中國廣東地境唐山浦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12 | 高宗6年 1869.6.13   | 獨浦里 申順集등 9명  | 大清國福建省晉江縣東浦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13 | " 1869.8.22      | 潛水里 金宰仕등 9명  | 大清國杭州定海縣        | 朝鮮國全羅道康津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14 | 高宗7年 1870.11.15  | 潛水里 朴春錄등 12명 | 大清國外島臺灣府        | 朝鮮國全羅道康津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15 | 高宗8年 1871.1.27   | 別防里 張運行등 3명  | 大清國江南所屬登山浦      | 朝鮮國全羅道靈巖郡人,釣魚次出海逢風漂流    |
| 16 | " 1871.10.3      | 日果里 姜信周등 5명  | 異樣船-清國-日本-對馬島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逢風漂流         |
| 17 | 高宗18年 1881.10.23 | 大林里 李炳天등 7명  | 大清國福建省惠安縣崇武鎮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釣魚次出海逢風漂到    |
| 18 | 高宗19年 1882.4.25  | 溫平里 康如弘등 2명  | 大清國江南省崇明縣蘇松鎮    | 朝鮮國全羅道康津縣人,釣魚次出海逢風漂到    |

(2) 일본 표류의 경우

| No | 기록연도             | 표류민수         | 표도국가 및 지점   | 출신지 위장의 예              |
|----|------------------|--------------|-------------|------------------------|
| 1  | 憲宗12年 1846.7.10  | 無注里 姜重吉등 3명  | 日本國對馬島今里浦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釣魚次出海逢風漂流   |
| 2  | 憲宗13年 1847.3.11  | 禾北鎮 金泰振등 26명 | 日本國對馬島今里村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3  | 憲宗14年 1848.12.15 | 別刀里 文京祿등 18명 | 日本國五島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4  | " 1848.12.15     | 潛水里 金永祿등 8명  | 日本國五島松浦     | 朝鮮國全羅道靈巖郡人漂到云          |
| 5  | 哲宗1年 1850.11.20  | 金寧里 韓明完등 2명  | 日本國五島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刈藁次逢風漂流     |
| 6  | 哲宗2年 1851.4.10   | 新村里 文乃敬등 5명  | 日本國是羅島      | 朝鮮國全羅道康津縣人,興販次出海逢風漂流   |
| 7  | 哲宗4年 1853.3.19   | 魚燈里 李彥辰등 3명  | 日本國 鳥島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釣魚出海逢風漂流    |
| 8  | 哲宗5年 1854.2.6    | 魚燈里 梁明煥등 6명  | 日本國薩摩島所屬屋久島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沙器回運次出海逢風漂流 |
| 9  | 哲宗6年 1855.3.3    | 別刀里 李德良등 46명 | 日本國女島       | 朝鮮國全羅道康津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      |            |              |            |                        |
|----|------|------------|--------------|------------|------------------------|
| 10 | "    | 1855.3.3   | 細花里 金宗珍등 7명  | 日本國五島沙浦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釣魚次出海逢風漂流   |
| 11 | "    | 1855.3.17  | 力芴里 禹光連등 2명  | 日本國五島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釣魚次出海逢風漂流   |
| 12 | 哲宗7年 | 1856.9.15  | 涯月里 高奉益등 7명  | 日本國五島大伊厚村  | 朝鮮國全羅道康津縣人,釣魚次出海逢風漂流   |
| 13 | "    | 1856.9.15  | 金寧里 李寬煥등 5명  | 日本國五島長吉浦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海草回運次出海逢風漂流 |
| 14 | 高宗4年 | 1867.5.10  | 下幕里 姜始國등 7명  | 日本國五島大賢村   | 朝鮮國全羅道靈岩郡人,質米回還之路,逢風漂流 |
| 15 | "    | 1867.6.27  | 又美里 李世助등 14명 | 日本國五島      | 朝鮮國全羅道康津縣人,釣魚次出海逢風漂流   |
| 16 | "    | 1867.9.8   | 朝天里 金大行등 6명  | 日本國對馬島完村   | 朝鮮國全羅道康津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17 | 高宗5年 | 1868.7.8   | 下幕里 李壽亨등 5명  | 日本國對馬島琴浦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納稅回還之路,逢風漂流 |
| 18 | "    | 1868.11.6  | 表善里 玄升裕등 3명  | 日本國五島      | 朝鮮國全羅道珍島縣人,釣魚次出海逢風漂流   |
| 19 | "    | 1868.11.6  | 別刀里 李時云등 17명 | 日本國長崎島     | 朝鮮國全羅道康津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20 | "    | 1868.11.6  | 大 靜 梁浩沄등 57명 | 日本國五島南方村   | 朝鮮國全羅道靈岩郡人,海島作農之路,逢風漂流 |
| 21 | "    | 1868.12.25 | 牛 島 高平連등 6명  | 日本國五島      | 朝鮮國全羅道康津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22 | 高宗6年 | 1869.5.18  | 涯月里 高汝夢등 5명  | 日本國對馬島     | 朝鮮國全羅道康津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23 | 高宗7年 | 1870.6.13  | 新村里 金光訓등 10명 | 日本國五島所屬玉津浦 | 朝鮮國全羅道靈岩郡人,質米回還之路,逢風漂流 |
| 24 | "    | 1870.6.13  | 牛島 高京云등 12명  | 日本國五島      | 朝鮮國全羅道康津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25 | "    | 1870.12.6  | 潛水里 高連明등 2명  | 日本國五島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釣魚次出海逢風漂流   |
| 26 | 高宗8年 | 1871.7.26  | 挾才里 姜千孫등 11명 | 日本國對馬島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3) 琉球 표류의 경우

| No | 기록연도 | 표류인수      | 표도국가 및 지점    | 출신지 위장의 예 |                         |
|----|------|-----------|--------------|-----------|-------------------------|
| 1  | 哲宗2年 | 1851.4.18 | 別刀里 任尙日등 7명  | 琉球國鶴島     | 朝鮮國全羅道康津縣人,釣魚次出海逢風漂流    |
| 2  | 哲宗7年 | 1856.2.12 | 別刀里 李在汀등 6명  | 琉球國大島     | 朝鮮國全羅道康津縣人,行商次出海是如可逢風漂到 |
| 3  | 哲宗8年 | 1857.3.13 | 無注里 韓致得등 3명  | 琉球國薄山島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採薪次出海逢風漂流    |
| 4  | 高宗4年 | 1867.7.28 | 一貴里 文白益등 15명 | 琉球國大島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行商次出海逢風漂流    |
| 5  | 高宗8年 | 1871.9.12 | 中大里 李大有등 6명  | 琉球國所屬久米島  | 朝鮮國全羅道海南縣人,釣魚次出海逢風漂流    |

【中文摘要】

『济州启录』中所记载的十九世纪济州岛居民的海难事故和中国漂流

元鍾敏

『济州启录』是由朝鲜宪宗十二年(1846)二月二十六日至高宗二十一年(1884)十一月六日济州牧(地方行政单位)向中央政府报告的启文集结而成的书。该书于1995年作为济州岛「西归浦市古书纵览」第1译卷出版发行,2012年济州发展研究院重新修订了该书内容上的错误,以「济州学总书」第4卷的名义再次出版。『济州启录』记载了与济州地区各方面行政事项相关的报告,包括济州地区的农事现状、进贡物品、济州岛居民的各种海难事故及外国船舶的漂流、济州地区举办科举考试的内容等等。因此『济州启录』是研究十九世纪济州地区的社会、历史、生活史等内容极其重要的史料。本论文考察了『济州启录』中所记载的十九世纪济州岛居民的海难事故记录,并对济州出身漂流者的实际出生地作假情况及其原因,以及从他们中国归返的过程进行了探究。

关键词: 济州岛, 济州启录, 海难事故, 漂流, 十九世纪

투고일: 2013 11. 10. / 심사일: 2013 11. 18. ~ 2013 12. 3. / 게재확정일: 2013 12. 6.